

《운양》호사건은 조선침략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강도적인 무장도발사건

오 순 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력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낱낱이 폭로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끝 없는 증오심과 천백배의 복수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48권 182페이지)

1875년의 《운양》호사건은 철두철미 일본침략자들이 미국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조선침략의 발판을 닦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발한 강도적인 사건이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침략자들이 감행한 《운양》호사건이 조선침략을 목적으로 한 강도적인 무장도발사건이었다는것을 까밝힘으로써 일제의 조선력사외곡책동을 밝히려고 한다.

《운양》호사건은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목적밑에 감행한 첫 무장도발사건이었다.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일본은 우리 나라를 저들의 해외침략의 첫 대상으로 규정하고 악명높은 《정한론》을 들고나왔다. 《정한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중단되어있던 조일간의 《국교재개》의 명분을 걸고 무력사용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조선침략정책이었다.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정책실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첫 시도로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였으며 이 사건을 구실로 조선봉건왕조와 침략적인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선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운양》호사건이 침략적인 무장도발사건이었다는것은 첫째로, 일본이 《운양》호를 조선에 들이민 목적자체가 조일 두 나라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불평등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직후 오오꾸보 요시미찌,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등 군사봉건적사무라이관료중심의 《천황》제정권이 세워졌다.

호전적이며 군사봉건적인 명치정권의 출현으로 일본의 대외정책은 서방렬강에 대한 굴종, 타협에 기초한 해외침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 세워진 정부가 저들의 자본주의적발전의 취약성, 국내에서 양양되는 반정부투쟁을 무마시키기 위한 출로를 조선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서 찾았기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해외침략의 첫 단계로서 조선침략을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1868년 12월초에 조선봉건왕조와 불평등적인 국교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일본측의 강도적요구로 일관된 모든 제안들은 조선봉건왕조의 강경한 대일자세로 하여 분쇄당하고말았다.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869년 10월 청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청일수호조약》을 체결하여 조일간의 무력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청나라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당시 일제가 확정한 《정한외교》의 내용을 보면 조선측이 《국서》를 거절하는 경우 단연코 관계를 단절할것, 군함 2척을 조선에 파견하여 《정벌》할것, 청나라와 조약을 맺고 돌아오는 도중 조선에 들러 조약을 맺을것 등 세가지 강도적인 제안으로 되어있었다.

일본이 《국교재개》라는 명분을 들고나온 자체가 조선봉건왕조의 심리를 자극하고 그의 반발을 야기시켜 조선에 대한 저들의 무력침공의 가능성을 마련해보려는 침략적목적에 바탕을 두고있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조일관계는 그 이후 일본이 목적인대로 1870년 11월말부터 3차에 걸치는 문서접수의 거절로 국교단절에로 넘어갔으며 일본에서 1873년 10월정변이후 군국주의적정책이 촉진되면서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계획은 더욱더 현실에로 접근해갔다.

게다가 조선에서 대원군정권이 무너지고 사대매국적인 명성황후일파가 집권한 이후 대일관계가 강경외교로부터 굴종외교로 바뀌면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에 유리한 정세가 마련되었다. 일본은 1874년 6월 24일 조선봉건정부에 비밀편지를 보내어 저들의 무력침공에 타협하여 《평화》를 유지하자는 강도적인 제안을 들고나왔다.*¹ 이 제안에 따라 같은해 7월 23일 동래왜관에서 조선측 대표 현석운, 현제순과 일본측 대표 모리야마 사이에 담판이 진행되고 조일국교재개교섭을 위한 안이 논의되었다. 모리야마는 담판에서 《일본대표가 동래부관가에 들어가서 동래부사와 두 나라 교섭의 형식에 대하여 토론한다.》라는 안과 함께 일본배들의 조선연해통과시 우리 나라가 그를 보호해준다는것 등을 통과시킴으로써*² 저들의 조선령해침공의 안전성을 마련하였다.

*¹ 《고종실록》 권11 11년 6월 24일

*² 《일성록》 갑술년 8월 9일

이처럼 《운양》호사건은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침략을 목적으로 사전에 의도적으로 조일관계를 악화시키고 《국교재개》담판의 명목으로 침공구실을 마련하려고 한 계획적인 도발사건이었다.

《운양》호사건이 침략적인 무장도발사건이었다는것은 둘째로, 《운양》호가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위한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와 강도적인 무장도발을 감행한 침략선이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무력시위로 조선봉건왕조를 위협하고 두 나라간에 무력충돌을 야기시켜 불평등적인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운양》호를 조선에 들이밀것을 결정하였다. 바로 그 서막으로 된것이 부산항에서의 《운양》호의 발포사건이였고 또 강화도에서의 포격사건이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의 첫 포성을 올린 《운양》호는 보통어선이나 상선이 아닌 일본해군성소속 군함이었다. 1868년에 영국에서 건조된 《운양》호는 배수량 245t, 길이 37m, 너비 7.5m, 기관마력수가 106hp인 당시로서는 1등급의 군함이었다. 이 배는 1870년 2월에 구입되어 《운양》호로 명명되었으며 일본해군성에 소속되어 우리 나라의 동서남해안을 기본작전무대로 하고있었다.

조선에 대한 일본군함 《운양》호의 강도적인 무장도발은 2차에 걸쳐 감행되었다.

《운양》호는 일본정부의 비밀지령에 따라 1875년 4월과 5월에 걸쳐 부산과 원산만을 돌아치면서 비법적인 측량과 무력시위소동을 벌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후 나가사키에 돌아와 조선에 대한 재차무장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일본정부는 저들의 1차무장도발에 대하여 조선봉건정부가 아무런 대응책을 취하지 않자 더욱 기고만장하여 8월에 또다시 2차무장도발을 감행하였다.

《운양》호는 조선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8월 21일 아침 함장 이노우에의 지휘에 따라 침략무리들을 실은 뚝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초지진 앞바다에까지 접근하였다가 초

지진수비병들의 정당방위로 쫓겨난 후 22일 초지진포의 최대사거리 700m밖에서 무차별적인 포사격으로 포대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22일 오후에는 향산도를, 23일에는 영종도를 공격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살륙하고 8월 29일 일본에 돌아가 그 결과를 해군성에 보고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운양》호사건이 감행된 후 일본정부는 《운양》호는 청나라의 우장으로 가던 평화적인 상선이고 음료수보충을 목적으로 초지진가까이에 접근하다가 인명피해를 보았다는 얼토당토한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거류민보호》의 구실밑에 조선봉건왕조에 통상조약을 강요해나섰다.

《운양》호는 영종도에 침입한 다음날인 8월 24일 강화도앞바다를 떠나 31일 일본의 나가사키에 도착하는 전기간 그 어느 항에도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음료수보충》이라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력사적사실은 일본의 이 모든 망발이 저들의 조선침략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기만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운양》호가 실지 조선동남해안으로부터 청나라 우장까지의 항로연구를 목적하였다면 강화도근처까지 접근할 아무런 명분이 없었다. 그런데도 《운양》호는 월미도와 영종도근처에 나타났으며 함장 이노우에의 지령에 따라 20여명의 침략무리가 뚝트를 타고 강화도 초지진포대가까이에 불법침입하였다. 강화도가 우리 나라 서해의 군사요새지이고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허가없이 섬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운양》호가 음료수보충으로 접근하였다는것은 이 사건이 철저히 고의적인 것이었다는것을 명백히 하여준다.

당시 육군대장 야마가타 아리또모가 《조선근해에서 진행된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 소좌의 해군연습은 가와무라(해군대보-인용자)의 비밀지시에 따라 계획된 시위운동이었다는 내적훈령을 해군성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한 사실과 《...〈운양〉호를 조선연해에 파견한것은 시위를 목적으로 진행한것이고 수로측량과 같은것은 단순한 구실에 지나지 않은것 같이 생각된다.》라고 한 사실, 《운양》호가 일본국기와 군함기들을 배에 달고 초지진수비병들의 자위적인 포사격에 신호탄발사와 함께 예정계획대로 발악적인 포사격을 감행한 사실들은 《운양》호사건이 조선봉건왕조에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요하기 위해 일본의 의도적으로 일으킨 침략사건이었다는것을 증명해주는 산 증거인것이다.

일본정부는 《운양》호의 경과보고를 받자마자 조선을 징벌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떠벌이면서 1876년초에 7척의 함선에 800명의 병력을 싣고 강화도에 달려들어 조선봉건왕조를 압박하여 2월 3일에는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체결하였다.

력사적사실은 《운양》호는 평화적상선이 아니며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의 선전대로 들어와 온갖 침략행위를 일삼고 우리 인민들에 대한 강도적인 살륙만행을 일삼은 침략선이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운양》호사건이 침략적인 무장도발사건이었다는것은 셋째로, 이 사건이 일본을 길잡이로 내세워 조선침략의 야욕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유미열강들의 적극적인 비호조장밑에 감행된 음흉한 침략행위였다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에 불평등적이고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일본의 침략책동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나선것은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미국은 저들의 극동침략정책실현의 주요한 교두보로 되는 조선을 먹기 위해 무려 세 차례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조선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여지없이 분쇄당하였다. 세차례의 쓰디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미국은 일본을 저들의 조선침략의 동맹자, 길잡이로 내정하고 《정한론》실현에 물심량면의 지지성원을 주었다.

19세기 70년대에 일본정부의 법률고문으로 등용된 미국인 스미스는 일본 외무경 소에지마와 《정한론》의 실현방도를 모의하였으며 미국정부의 어용출판물인 《뉴욕 헤랄드》는 1872년 1월 22일부에 조선개방에서 미일공동행동이 가지는 유리성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등 대대적인 선전감싸니야를 벌렸다.

미국은 1873년에 군사력의 취약성으로 조선침략을 망설이는 일본에 8천만발의 탄약을 제공해주고 일본과 평등적인 관계에 기초한 체신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874년에는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인들에게 일본의 법률을 준수할것을 명령하여 사실상 대일치외법권을 취소하였다.

지어 일본주재 미국공사 뽕햄을 통해 일본정부에 미국인 하우크스의 저서 《중국어 및 일본원정 미국함대실기》를 보내어 《운양》호의 조선침공을 격려해주었으며 이노우에에게는 미국인 타일러의 저서 《페리의 일본원정소사》까지 안겨주면서 조선에서의 행동방향까지 알려주었다.

미국이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일본이 조선침략준비를 손쉽게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으며 일본의 조선침략야욕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로도 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의 음흉하고 교활한 비호조장밑에 저들의 조선침략정책실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과 충분한 무력준비를 갖추는데 기초하여 《운양》호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조선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모든 력사적사실은 일본침략자들이 감행한 《운양》호사건은 철저히 조선침략을 목적으로 한 강도적인 무장도발사건이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침략력사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미제를 등에 업고 아시아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우리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과 그 위험성에 대하여 똑똑히 알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할것이다.